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, 서암저수지 '수질자동측정망 사업' 추진

김영찬기자 | 승인 2021.12.08 17:42 | 7면

수질자동측정망 통해 환경오염사고 예방·깨끗한 물 공급



▲ 의령 수암저수지 수질측정기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(지사장 박성수)는 서암저수지에 농촌용수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저수지에 접목시켜 깨끗한 농업용수를 만들어 공급 할 계획이다.

의령지사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질관리를 위해 1990년부터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며 저수지 975개소에 대한 분기별 측정과 결과를 활용한 수질개선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.

하지만 최근 경제활동과 오염원 유입이 증가되면서 수질오염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다 수질오염사고 중 유류 오염과 축분·오폐수 유입이 46%를 차지하고 있어 오염사고 시 오염원 확인과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.

이에 기존 농업용 저수지에서 직접 시료를 채수해 실험실로 이송해 분석하는 수질조사 방식이 아닌 IoT 센싱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있다.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사업으로 발굴해 지원하게 됐다.

이로써 수질자동측정장치와 수질자동측정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‘통합수질관리시스템(가칭)’이 완료되면 실시간 저수지 수질의 측정과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 향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장기간 수질 예측과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의령지사 관계자는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, 깨끗한 물을 공급해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박성수 지사장은 농촌용수 수질자동측정망사업을 시작으로 디지털 기술을 수질관리에 적극 활용,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. 김영찬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영찬기자